



세계 타이어 산업

- 타이어메이커 매출순위조사를 중심으로 -

1. 2003년 타이어 산업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의 신생 타이어 제조사들의 성장으로 03년 세계 타이어 시장은 03년 대비 12% 성장하여 8백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타이어 시장의 성장은 선두에 있는 다국적 타이어 메이커들에 의해 견인되었고, 이 같은 성장세는 대부분 달러 약세에 기인했다.

ERJ (European Rubber Journal)가 조사한 03년 매출액 순위를 보면, 세계 선두 타이어제조사 75개사 중에 중국 타이어 회사들이 16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3개사가 20위에 속해있다. 이들 16개 중국 회사들의 매출 총합은 세계 타이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0억 달러 이상이였다. 미 교통성(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20개 타이어 공장이 신규 타이어 생산과 미국에서의 타이어 판매에 필요한 DOT 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불과 45개사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신규시설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의 다국적 타이어 기업과 중국 자체 타이어 회사들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ERJ 순위 조사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6.2%의 판매 성장률을 보이며 토요타를 따돌린 한국타이어사의 성장과 Grandtour Tyre사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타이어 메이커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03 세계 타이어 제조사별 매출액 순위

백만\$/%

Rank		회 사 명	2003		2002	
03	02		그 룹 매 출	타이어 부문 비중	그 룹 매 출	타이어 부문 비중
1	1	미 쉘 린	16,150.0	93	14,425.6	95
2	2	브 리 지 스톤	14,800.0	75	13,465.0	75
3	3	굿 이 어	13,600.0	86	1,230.0	89
4	4	컨 티 넨 탈	5,600.0	43	4,795.9	45
5	5	피 레 리	3,255.2	43	2,692.7	41
6	6	수 미 토 모	2,922.2	75	2,638.4	74
7	7	요 코 하 마	2,552.0	72	2,354.2	72
8	8	쿠 퍼	1,872.9	53	1,714.0	52

☞ 참고 : 한국의 타이어메이커들은 10위권 내외 순위를 차지함



그룹 미쉐린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으며, 10억달러 이상의 매출고를 올린 브리지스톤이 거의 10%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미쉐린사는 03년에 판매기반 굳히기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PT Gajah Tunggal Tbk사, 한국타이어사, 그리고 인도의 Apollo Tyres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인도에 신규 타이어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Apollo Tyres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실행했다. 랭킹 3위의 굿이어사는 10%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주요 메이커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총 136억불의 굿이어사 매출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South Pacific Tyres 합작회사에서의 수익이 포함된다. 굿이어에 이어 독일 컨티넨탈사는 56억불의 매출로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컨티넨탈사는 04년 초에 말레이시아 Sime Darby Sdn Bhd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연간 타이어 판매에서 2억5천만불 이상의 잠재수익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설비기반을 확충했다. 랭킹 6위 수미토모사는 범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다.

03년 매출액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 1인당 평균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8.9% 성장하여, 176,255달러를 기록했으며, 판매 대 순수익의 평균 비율은 1.3%이었다.

11개사 중 굿이어사만 03년 회계연도에 손실을 보였으며, 영업이익 면에서 11개사의 평균은 6%였다. 75개사 중 16개사가 중국회사였으며, 미국 회사가 8개사, 인도 7개사, 일본, 러시아 그리고 대만이 각각 5개사, 이란과 한국이 각각 3개사. 9개사가 유럽(러시아 제외) 회사였다.

2. 04년 세계 타이어 산업의 현황 및 전망

04년 상반기 타이어 산업의 매출은 굿이어사를 포함한 모든 상위 타이어 메이커들이 수익 증가를 발표하면서 두드러진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02년 3/4분기에서 03년말까지 지속된 적자흐름에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04년 상반기 타이어판매 증가세로 브리지스톤과 쿠파는 자사의 04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타이어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우려 변수는 원재료 가격에 관한 불확실성이다. 세계 타이어 제조사들의 대표들은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판매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종업원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카본블랙이나 다른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모두 가격의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타이어 회사들은 철강가격 증가와 심지어 타이어 코드와 비드와이어의 부족과 같은 문제와 맞부딪히고 있다. 04년 하반기의 거의 모든 수익 전망은 향후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가격에 맞춰져 있다. 예컨대, 쿠파사는 2/4분기 재무제표에서 원재료 비용이 전년보다 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굿이어사는 5~7%의 원재료 비용 상승 추정치를 내놓았다.



쿠퍼사는 04년 상반기와 2/4분기에서 기록적인 판매와 수익을 기록했다. 20.3%가 증가한 19억7천만불 매출에 대해서 순이익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5,720만불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영업이익은 40.8% 상승한 4천2백만불이고, 판매는 20.3%가 증가한 99,970만불을 기록했다. 그리고 04년 1~6월까지 쿠퍼의 출하는 세계 타이어 산업의 5% 성장과 비교해 9.8% 상승했다.

브리지스톤사는 1/4분기 순이익에서 64%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04년 전체 순이익 전망치를 39% 상향조정했다. 브리지스톤의 이러한 전망 조정은 04년 후반기의 사업여건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브리지스톤은 04년도 전체 순이익이 4.4%가 성장한 945백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4년 상반기 브리지스톤의 순이익은 482백만불이며,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833백만불이고, 1/4분기 매출은 일본이외 지역의 타이어수요 증가에 따른 타이어 부문 판매의 4% 증가에 힘입어 3.7%증가한 10,600백만불을 기록했다.

미쉐린의 1/4분기 순이익은 타이어시장의 입지향상으로 거의 배가 되었다. 순이익은 98.8% 상승한 403.6백만불이며, 매출은 6.4% 상승한 9,600백만불, 영업이익은 20.1% 상승한 852.5백만불을 기록했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환율과 원재료 비용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높은 판매량과 적정가격 그리고 유럽에서 새롭게 획득한 Viboreg distribution business의 정착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미쉐린측은 설명했다. 04년 전체의 영업실적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미시장에서의 미쉐린은 교체용 타이어 부문의 점유율이 5.3% 상승했으나 소비자의 미쉐린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료가격 증가, 그리고 SUV 차량의 교체용 타이어 부문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굿이어사는 04년 2/4분기에 30.4백만불의 북미 타이어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을 포함하여 25.1백만불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굿이어사는 76.9백만불의 1/4분기 적자 이후 전반기에 여전히 51.8백만불 적자였고, 이는 3/4분기 36.5백만불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굿이어는 타이어부문 판매수의 면에서 13.7%가 증가한 7,740백만불을 기록했고, 타이어 판매수량으로는 전반적으로 5.1% 성장한 110.7백만개를 기록했다. 북미 시장에서의 타이어 판매는 14%가 상승했으나 판매수량으로 보면 단지 0.6% 성장으로 50.4백만개를 기록하여 높은 판매가격을 반영했다. 원재료 비용 상승과 연금문제 그리고 적지 않은 채무 등이 굿이어사의 재무재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동사 회사 간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18개월 전 상태와 비교하면 현재의 진전은 상당히 만족스런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란 문제에 대해선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굿이어사도 잘 알고 있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4. 12월호>